

Venture 즐겨찾기

# KTTC

21세기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강국이 된다. 글로벌 기술경쟁 시대에 숨은 기술을 발굴하고 그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일을 하고 있는 한국기술거래소. 올해로 창립 5주년을 맞는 한국기술거래소는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기술사업화 정책 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며 '제2의 도약'을 추진 중이다.

우수 기술흥려 발굴한다  
한국기술거래소



한국기술거래소 (<http://www.kttc.or.kr>)

한국기술거래소의 홈페이지에서는 거래소 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각종 기술시장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기술거래 평가자료와 M&A자료, 각종 법률정보 등은 '문서 자료실'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고객 지원센터에서는 기술거래 상담과 M&A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한

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는 개인이나 연구소·기업 등이 갖고 있는 우수 기술을 산업화함으로써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기술기반을 다지려는 목적으로 2000년 2월 기술이전촉진법에 따라

정부·금융기관·벤처관련기관 등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이다.

거래소는 기획본부, 기반조성본부, 기술거래본부, M&A사업본부 등 4개 본부로 구성되며, 지적재산의 거래시장 조성과 유통환경 구축, 전통제조 산업과 벤처기술의 접목을 통한 지식산업화 등 기술 인프라 구축,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자본 유치활동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시장·기업거래시장·기술투자시장 등 3대 기술거래시장을 개설·운영하여 국내 기술거래시장의 발전은 물론, 시장기능에 의한 기술거래 체제 확립, 기술가치의 객관적 평가체제 구축을 꾀하며 기술평가시장 활성화, 산업별·기술별 평가모델 기법 확립, 국가 기술거래 정보DB 구축(NTB: 한국기술은행), 기업 간 M&A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찾아 해당 기업에 이전하여 주는 일을 비롯해 도입기술을 이전하기 전에 그 가치를 산정하는 일 등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도 수행한다.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기관으로서 토대 마련

2004년 9월, 정부는 기술가치평가의 활성화와 초기단계 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기술사업화전문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기술과 자금을 연계하는 '기술사업화 종합촉진대책'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기술사업화의 모든 단계에서 공공성, 신뢰성,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기관이 되려는 비전을 갖고 기술가치 평가기관으로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국내외의 연구소, 대학이 보유한 우수 기술정보를 발굴하여 서비스하는 일과 함께 매주 정기적으로 좋은 기술을 기업에 소개하는 설명회를 운영 중이다. 그리고 기술중개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전국의 유관기관 및 전문가를 양성·교육하는 임무를 인프라 조성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국내기업 중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거래소에서는 현지 기술마케팅을 추천하고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투자자본을 유치한다.

### 중소·벤처기업 간의 M & A에 주력

거래소는 2000년 설립 이후,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소벤처기업 간의 M&A에 주력해 왔다. M&A는 기술거래의 가장 완결된 형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직원들로 벤처 M&A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비상장기업의 주식이치평가 시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인 기술가치 평가 산정이 중요시되면서 매주 3~5건씩 M&A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거래소가 다른 M&A중개 부티크와 다른 점은 기업의 주식이치뿐 아니라 보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컨설팅 결과 기업인수가 적당한지 기술도입이 바람직함을 맞추는 컨설팅으로 진단해 준다.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기업과 기술을 같이 볼 수 있는 전문인력 공조체제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또한 중기청 지원의 M&A중개비용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존 부티크가 M&A 물건 자체에 적극적으로 중개를 맡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관련한 지원도 곁하고 있다.

### 초기 기술과 사업화 금융 연계

올해는 초기기술과 사업화 금융을 연계한 다양한 사업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을 보유한 기술기반 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조달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력 평가결과를 통해 금융권의 투자·융자를 연계하는 중소기업 기술력 평가 프로그램이 있다. 또한 사업화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술기반 중소벤처기업에 대해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보증보험사의 보증서를 근거로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기술가치 평가보증 보험사업을 신규 추진 중이다. 정부의 R&D과제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시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우선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술평가사업본부 여인국 본부장

한국기술거래소는 다양한 평가목적에 따라 대상 기술의 우수성,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진단하고, 무형자산으로서의 금액가치를 산정하는 전문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또는 방문상담 후 평가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예비검토를 통해 평가제안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이후 기술성, 권리성, 시장 및 재무 전문가로 구성된 4~5인의 평가팀이 약 4주에 걸쳐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문의 02-6009-4351)